



주 제:	“ 거룩한 성전 ”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	2008년 11월 9일
복음 묵상:	[요한 2,13-22]	[에제 47,1-2.8-9.12]	[1 고린 3,10-11.16-17]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서 말씀과 성사를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만나지만, 말씀과 성체를 받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 됩니다. 또 세상 안에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자신이 하느님을 만나게 해주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도, 다른 모든 사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는 그러한 성전을 함부로 훼손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쟁, 살인, 폭력, 중독, 유괴, 착취 등 하느님의 성전인 인간을 함부로 대하고 해치는 사건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자기 스스로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은 자살률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1.5명)입니다. 평균이 11.2명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세상의 어지럽고 탐욕스러운 것들로 그리스도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도 안되겠지만, 그 성전을 스스로 파괴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으로 생각하고 거룩하게 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대할 수 있고 그 성전에 머무시는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정부 문화 미디어극 강론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서 병문 바오로와 박 상미 베로니카의 첫애기를 위한 baby shower 는 대부분의 단원들이 다 참석하여 축하하는 가운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Baby 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성가대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 아네스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 마스타 코라스 정기연주회 공연은 많은 성가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과 참석하여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조경자 율리아나 자매님 10/5-11/9 예정으로 한국에 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좋은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San Francisco Symphony Youth Orchestra 연주회**
Stephen Kim(김효식 필리보 네리 형제님 막내아들)군이 San Francisco Davies Symphony Hall 에서 바오울린 협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협연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참석하셔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언제: 11월 9일(일) 2:00 PM**
- **어디서: [Davies Symphony Hall, San Francisco, CA 94102](http://DaviesSymphonyHall.com)**

- 방효의 신부님 과 이 레미디오 수녀님 Convention Center 에서 신앙 강좌
일시 : 11월 22일(토) 오전 10-11:15, 1:00-2:15 pm
장소 : Santa Clara Convention Center
[5001 Great America Parkway, Santa Clara, CA95054](http://5001GreatAmericaParkway.com)
많이 참석하시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남자 단원 제 2차 단합모임
언제: 11월 16일 오후 연습후
어디서: 이상규 토마스 아퀴나스 형제님택
[2521 Cowper ST, Palo Alto, CA 94301](http://2521CowperST.com)



유대인들의 과월절이 가까와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 가셨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꾼들과 환금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쫓아내시고 환금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며 그 상을 둘러 었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에게 "이것들을 거두어 가라. 다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꾸짖으셨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머리에는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의 집을 아끼는 내 열정이 나를 불사르리이다' 하신 성서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 때에 유대인들이 나서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에게 이럴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시오.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 주겠소?" 하고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들이 예수께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 육 년이나 걸렸는데, 그래 당신은 그것을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다 단 말이오?" 하고 또 대들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뒤에야 이 말씀을 생각하고 비로소 성서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공지 사항:

1. **소식지**에 그주의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한후 미사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2. **화답송**은 매주 토요일까지 성가대 소식지에 실려 음원과 악보를 보내겠아오니 꼭 해 보시고...
3. **성탄 특송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0824>



1분 명상

♡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 “내 인생을 바꾼 특별한 순간” 중에서



나는 음악 레슨을 통해 배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아틸리오 포토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이자 보스턴 음악원의 교수였고 훌륭한 클라리넷 연주자였다. 그와의 첫 연습곡은 매우 어려웠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수를 많이 했다. 그는 몇 군데를 고쳐 주고 시범을 보여 주었다. 내가 다음 주에도 그 곡을 연습하겠다고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곡으로 악보를 넘겼다. 전 주에 힘들게 연습했던 곡보다 훨씬 어려운 곡이었다.

그 다음 주 레슨은 더 끔찍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연주는 엉망이었다. 그런데 그는 환하게 웃으며 또 악보를 넘기는 것이었다. “한 주 더 연습을...”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의 반복이었다. 나는 그가 그다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6주가 지났다. 내가 예의 그 불평을 또 하려고 하자 그가 몇 주 전에 날 그토록 괴롭히던 첫 번째 악보 페이지로 넘겼다. “연주해 봐요.” 그가 말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쉽게 연주할 수 있었다. 6주 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다음 곡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역시나 쉽게 연주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곡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레슨을 통한 깨달음은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시점은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전이라는 것. 단, 전제 조건이 있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게 인내력을 가져야 한다.